

##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 대상 사교육 시장의 성장과 공간적 함의

박소현\* · 이금숙\*\*

### Expansion of Private Tutoring Market for Adults according to Labor Market Changes a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ohyun Park\* · Keumsook Le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사설학원의 수강생 중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별(대학생, 직업인, 무직), 학력수준별(초졸, 중·고졸, 대졸)로 범주를 세분화하여 각 범주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지역별 분포 패턴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Moran's I 값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판별하였고,  $G^*$ 통계량을 통한 핫스팟(Hot spot) 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적 군집 여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학원유형별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설명변수와의 관계 도출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노동통계, 교육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주요어 :** 성인 사교육, 노동시장 변화, 공간적 자기상관, 핫스팟 분석, 다중회귀모형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rivate tutoring markets for adults which have been expanded rapidly with labor market changes in Korea. In particular, For the purpose, we examine thoroughly various indices of labor markets and private tutoring markets for adults in Korea in first and then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We classify private tutoring institutes for adults into two categories by job-statuses and education levels, and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attendants of the class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 of their distributions, we distinguish whether there exist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r not by applying Moran's I values for each categories in first. We also examine the spatial cluster patterns by Hot spots analysis utilizing  $G^*$  statistics.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are developed for each category to expla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private tutoring institutes and geographical variables.

**Key Words :** Private tutoring for adults, labor market changes, spatial autocorrelation, hot spots,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

이 논문은 2012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hyunpk5@hanmail.net)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slee@sungshin.ac.kr)

## 1. 서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증가, 고학력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취업난, 고용불안으로 인한 역량강화 경쟁이 노동력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되면서(신광영·문수연, 2014; Blanchflower, 2000; McGuinness, 2006; Sicherman, 1991), 청년층의 경우 이른바 취업스펙을 쌓기 위한 취업준비 사교육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교육 경험은 실제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민선, 2013; 노경란 외, 2011; 박성재, 2006; 이병훈, 2002; 채창균·김태기, 2009; Couch, K., 1992; Mischo, C. and Haag L., 2002).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기존의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성취도의 향상이나 입시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 특히 청년층이 노동시장의 진입에 있어 보다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고학력자의 급증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소위 말하는 꾀잡은 일자리가 급속히 줄면서 청년실업, 하향취업과 취업 재수현상 등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통계청의 “청년층부가조사(2013)”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졸업·중퇴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층 대졸자 중 휴학경험(42.9%)의 사유로 어학연수 및 인턴경험,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9%로 병역의무(68.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제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의 취업목적 사교육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계층은 매우 다양하다. 취업한 직장인들도 승진 또는 이직을 위해 취업 이후에도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최재현, 2013)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교육 및 교양 강좌를 위한 학원 수강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후의 취업 준비생, 실업자 등도 사교육의 참여 대상이 된다. 성인, 특히 청년층의 사교육 경험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노동시장의 진입 및 정착 문제 등 여러 요인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입시목적 사교육과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을 다룬 연구는 그리 다양하지 않다. 주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에 따른 사교육 실태와 그 규모를 조사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김지하·박지은, 2008; 노태익·박자연, 2004; 민혜리, 2003; 박지윤·김병주, 2012; 이정미, 2010; 정지선·김훈호,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학력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사설학원의 수강생 중 성인<sup>1)</sup>을 대상으로 직업(대학생, 직업인, 무직)과 학력수준(초졸, 중·고졸, 대졸)을 기준으로 하여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학원 수강생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들의 지역별 분포가 갖는 공간적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공간적 분포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Moran's I 값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판별하고, G\*통계량을 통한 핫스팟(Hot spot) 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적 군집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학원유형별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설명변수와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정립한다.

## 2.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 1)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고학력화 현상

지속적인 교육의 보편화와 고등교육의 확대로 199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대학<sup>2)</sup>)으로의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1990년 27.1%, 2000년 62.0%에서 2009년 77.8%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차츰 낮아져 2013년 70.7%(일반고 77.7%)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1990년 9.5년에서 2000년 10.6년, 그리고 2010년 11.6년으로 점차 상승하여 왔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대략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급격한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대졸 이상 졸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의 졸업자 수는 1990년 약 28만 명에서 2013년 약 65만 명으로 2.3배가량 증가하였다. 박사 학위 취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만 명 돌파 이후, 2013년 12,625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는 1990년보다 약 4.6배 증가한 수치이다. 1981년 시행된 졸업정원제, 1996년부터 시행

된 대학정원 자율화의 포괄승인제,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의 정책이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전재식, 2011).

교육의 고학력화는 노동시장 공급 구조의 고학력화를 초래하였다(그림 1). 노동 공급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sup>3)</sup>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1980년 6.7%, 1990년 14.0%, 2000년 24.6%, 2010년 38.9%, 2013년 42.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중졸의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0년부터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졸의 경제활동인구도 2005년(43.2%)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3년 39.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구성비 추이를 보면 중졸 취업자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졸 취업자도 2000년(14.3%)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대졸 이상 취업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3년 42.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의 10명 중 4명 이상은 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인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로 비정규직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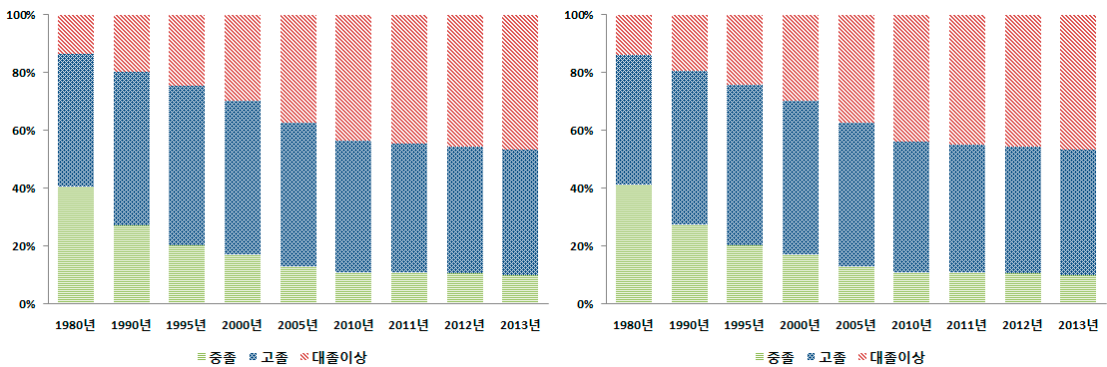


그림 1. 학력별 경제활동인구(좌) 및 취업자(우)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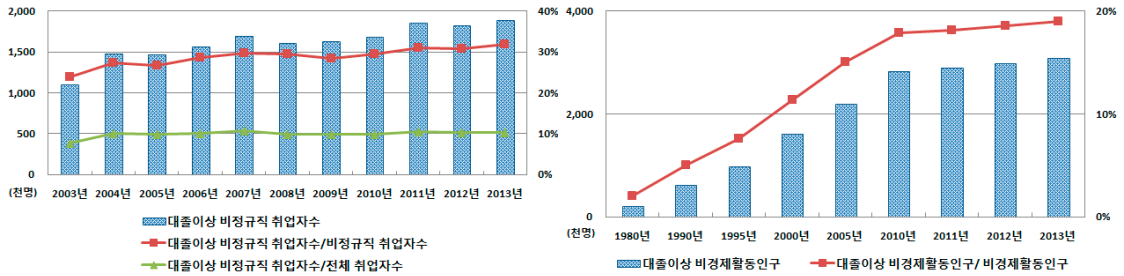


그림 2. 대졸 이상 비정규직 취업자(좌) 및 비경제활동인구(우)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 기간별 평균 고용탄성치 추이

(단위: %)

	1980년대	1991-1997년	2000년대
취업자증가율(A)	2.9	2.2	1.1
국내총생산(GDP)증가율(B)	10.0	7.1	3.9
고용탄성치(A/B)	0.29	0.31	0.28

출처: 류지성(2010)

동시장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대졸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체 비정규직 취업자<sup>4)</sup>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2003년 23.8%에서 2013년 31.8%로 8.0%p 상승하였다. 전체 취업자에서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7.8%에서 2013년 10.4%로 2.6%p 상승하였다. 한편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대졸 이상의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0%, 2000년 11.4%, 2010년 17.9%, 2013년 19.0%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고학력 노동 공급량은 충분한데 반해 노동시장에 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고등교육의 확대와 고학력화로 양질의 인력 공급은 증가하였지만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고용창출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경제성장률 1% 상승 시 취업자수 증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를 보면 1980년대 0.29%, 1991-1997년

0.31%, 2000년대 0.28%로 고용흡수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

## 2)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고학력화, 고등교육의 팽창은 경제성장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청년 실업 양산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 소위 관참은 일자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쏠림 현상에 의한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1980년 33.2%, 1990년 27.8%, 2000년 23.1%, 2010년 16.4%, 2013년 15.1%를 차지하였고, 청년층 인구가운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증감세를 반복하다 2005년(44.9%) 이후 감소한 뒤 완만해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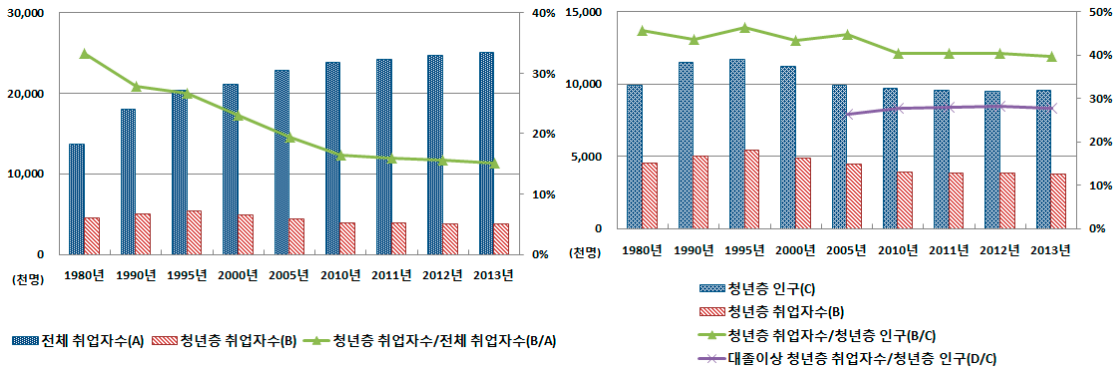


그림 3. 청년층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 인구 중 취업 상태인 사람이 10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인구 중 대졸 이상의 청년층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6.4%, 2010년 27.9%, 2013년 27.6%로 나타나 고학력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계속 취업준비를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541만 7천명으로 이 중 취업시험 준비자의 비중은 11.3%이며 준비 분야로는 일반직 공무원(31.9%) 준비가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체 21.6%, 국가고시 및 전문직 9.9% 등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까지도 하지 않는 아예 쉬면서 노는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차후 이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 3. 성인 대상 사교육 시장의 성장 및 분포 특성

#### 1) 성인 대상 사교육 시장의 성장 및 분포 추이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인적 자본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Baker et. al., 2001),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 동안 뿐 만 아니라 학령기 이전과 학령기 이후 성인에 이르기 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사교육 시설은 지역 격차 및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박소현·이금숙, 2011; 하영주·이원호, 2013; 문은진·이금숙, 2013).

사교육 참여 연령층이 성인 및 학령기 이전의 아동까지 확대되면서 2009년부터는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두 종류로 연령 대상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학생 대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기존의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분야에 특수교육, 기타 분야가 추가되었고,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는 기존의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분야에 기예 분야가 추가되었다. 특히 영어교육 열풍이 전 연령층으로 가속

표 2. 사설학원 계열 분류 기준의 세분화

2004년 이전	2004-2008년	2008년 이후			
분야	분야	종류	분야	종류	분야
직업기술	직업기술	학교교과 교습학원	특수교육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경영실무		기타		기예
경영실무	예능		국제화		
예능	국제실무		입시검정 및 보습		인문사회
문리	인문사회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주)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분야는 제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사설학원 계열 분류 기준

화되면서 두 종류의 연령층 학원 분류에 국제화 분야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입시전형의 다양화, 실업률의 장기화, 자기개발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다양해졌고 아울러 사교육 서비스도 영역과 대상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다음 표 2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사설학원의 계열 분류<sup>5)</sup>” 기준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교육 서비스의 다양화를 반영해 기존의 분류 기준이 점차 갈수록 세분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까지 사설학원의 분류 기준은 직업기술, 문리, 경영실무, 예능의 총 4개 분야였다. 2004년부터 새롭게 국제실무 분야가 생겼고 문리 분야는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인문사회 분

야로 세분화되면서 총 6개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연령 대상이 구분된 학원 종류에 따라 집계 조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연도별 증가율은 다음 표 3과 같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전국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수는 2010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4년 사이에 48.4%나 증가하였다. 특히 학원 유형별로 보면 국제화와 기예 분야가 4년 동안 각각 84.7%, 422.7%로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성인 대상 학원의 급증은 청년층의 취업준비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

표 3. 성인 대상 사설학원 증가율 추이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생직업교육학원	21.2	17.9	1.7	2.0
직업기술	10.9	15.0	1.4	-1.4
국제화	7.8	28.3	9.2	22.3
인문사회	16.1	-2.9	-7.1	-6.3
기예	200.9	48.8	5.7	10.4
학교교과교습학원	4.2	-0.9	-0.8	-0.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성인 학원수강생 수도 증가하였다. 성인 학원수강생의 경우, 학원 수강에 있어서는 성인 대상이 아닌 학생 대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의 학원 수강에도 참여가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성인 학원수강생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를 수강하는 수강생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의 성인 학원수강생 수는 1990년 541,804명에서 2000년 738,011명, 2010년 1,474,213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 975,877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성인 학원수강생 수도 1990년 242,204명에서 2000년 450,977명, 2010년 1,059,712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 630,994명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3년 동안 전국 및 수도권의 성인 학원수강생수 증가율은 각각 무려 80.12%, 160.52%에 달한다(그림 4).

또한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국 대비 수도권 지역의 성인 학원수강생 점유율은 1990년 44.7%, 2000년 61.1%에서 2011년 72.1%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2년 수강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64.7%의 비중을 차지해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의 선택적 이동에 있어 사교육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도 이 시기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sup>6)</sup>, 장기적인 경제 불황 등이 감소 원인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성인 학원수강생의 특정지역으로의 편중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단위면적 당 행정구별 15-64세의 거주인구수와 성인 학원수강생 수의 상위 분포지역을 나열한 것이다.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관악구가 21,922명/km<sup>2</sup>으로 면적 대비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냈으며, 그 뒤로 동작구, 종로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5-64세 인구밀도는 양천구와 동대문구가 각각 8,730명/km<sup>2</sup>, 6,567.2명/km<sup>2</sup>으로 높게 나타났다. 15-64세 인구밀도 분포와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양천구와 동작구를 제외하고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원수강을 할 경우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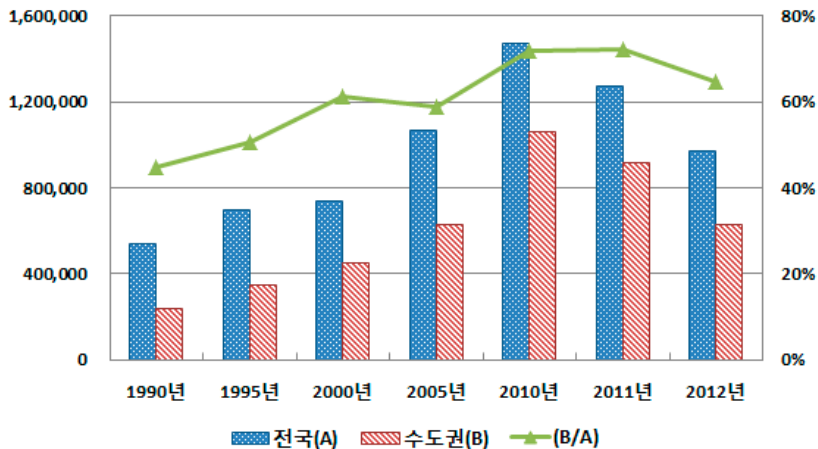


그림 4. 성인 학원수강생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표 4.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 및 거주인구(15-64세) 상위 분포지역

	행정구	학원수강생	행정구	거주인구
1	관악구	21922.0	양천구	8730.4
2	동작구	19451.8	동대문구	6567.2
3	종로구	18712.5	동작구	1967.1
4	중구(서울)	17665.3	중랑구	1469.2
5	양천구	17046.4	광진구	952.7
6	수원시	16155.6	구로구	902.9
7	강남구	15625.2	강동구	627.9
8	서대문구	15565.7	송파구	604.5
9	영등포구	14750.8	성북구	598.5
10	서초구	14501.0	금천구	536.0

주) 행정구별 면적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단위 면적 당 분포 밀도임.

자료: 교육통계연보(2011), 통계청(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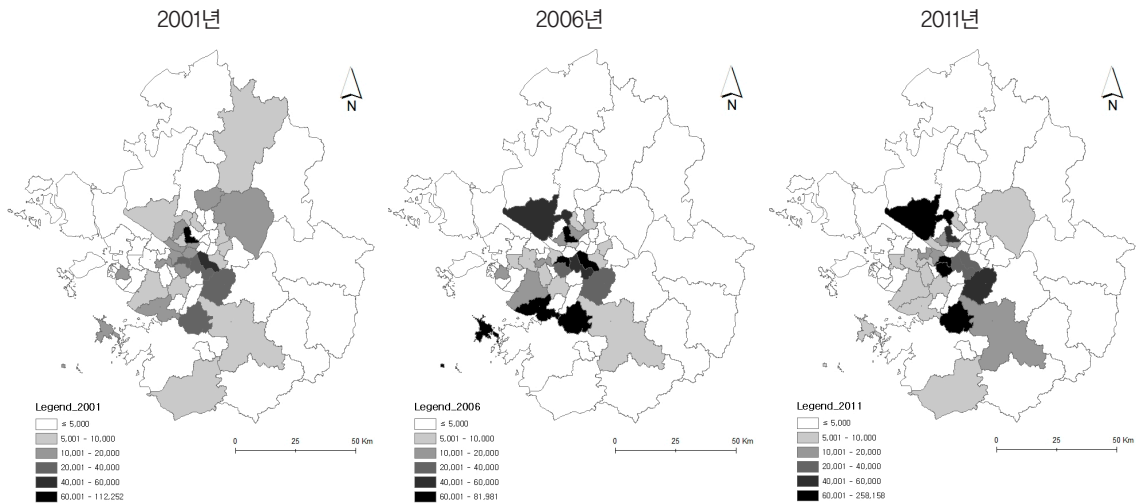


그림 5.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의 지역별 분포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다음으로 그림 5는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의 지역별 분포 추이를 나타낸다. 2001년, 가장 많은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를 보인 지역은 종로구로 6만 명 이상이 학원 수강을 위해 이 지역으로 밀집하였다. 그 외 강남구, 수원시, 동작구, 서초구, 성남시 등이 주요 분포지역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성인 학원수강생이 증가하면서 밀집 지역

도 확산되었다. 주요 밀집 분포지역은 수원시, 종로구, 강남구, 안산시, 동작구 등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성인 학원수강생의 압도적인 집중 분포지역은 관악구로 약 26만 명이 학원 수강을 위해 이 지역으로 밀집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 수원시에 분포하는 학원수강생이 약 11만 명인 것과 행정구역별 면적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 외 동작구, 고양시, 성남시, 종로구 등이 주요 분포지역으로 나타났다.

2)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 특징:

학원유형별, 직업별, 학력수준별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 수의 직업별, 학력수준별 추이를 보았다(그림 6). 2012년 기준 수도권에 분포하는 학원수강생 중 대학생은 195,842명, 직업인 234,250명, 무직 200,902명으로 2010년을 기점으로 전체 성인 학원수강생 수는 감소하였지만 직업별로 보면 무직 상태인 학원수강생 수는 2011년에 오히려 3.1% 증가하였고, 직업을 가진 학원수강생 수는 2011년에 감소한데 반해 2012년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수도권에 분포하는 학원수강생 중 초졸 학력자는 28,339명, 중·고졸자 160,559명, 대졸자 246,254명으로 대졸인 학원수강생 수는 2010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그 이후 급감하였고, 중·고졸의 학원수강생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2010년 이후로 감소하였다. 반면 초졸의 학원수강생 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23년간 초졸, 대졸의 학원수강생 수는 각각 413.7%, 687.1%의 높은 증

가율을 보인데 반해 중·고졸의 학원수강생 수는 10.6% 감소율을 나타냈다.

표 5는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의 직업별, 학원유형별 수강 분포를 나타낸다. 먼저 직업별 구성비 분포를 보면 2011년 성인 학원수강생 중 대학생은 평생직업교육학원 종류의 국제화(41.3%) 분야를 가장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는 성인 학원수강생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의 입시검정 및 보습(23.6%) 분야와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의 국제화(22.2%) 분야로의 수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인 성인 학원수강생은 인문사회(43.7%) 분야를 가장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원 유형별로 구성비 분포를 보면 국제화 분야의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두 종류 모두에서는 대학생이 각각 44.1%, 76.5%로 가장 큰 수강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예와 예능 분야는 직업인이 각각 43.7%, 39.7%로 가장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 입시검정 및 보습, 직업기술 분야는 학원수강생 중 무직 상태인 성인 학원수강생의 비중이 각각 66.2%, 48.9%, 40.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요컨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는 성인은 주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과 관련된 학원 수강으로의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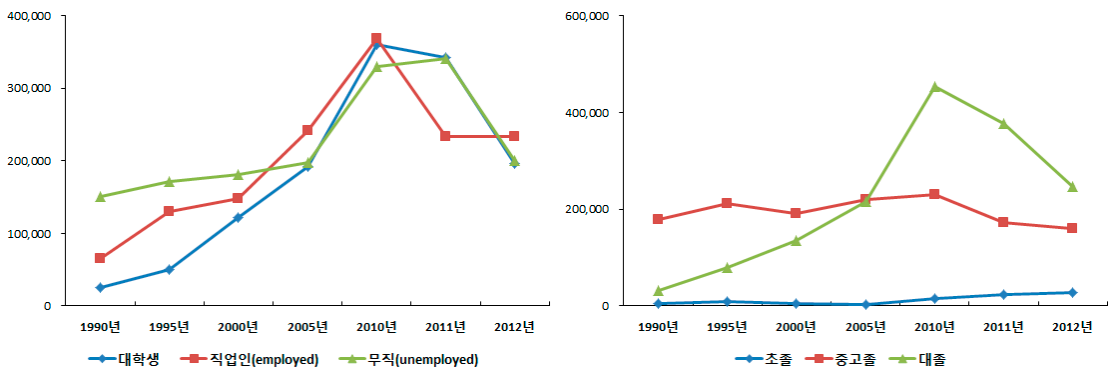


그림 6.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 추이: 직업별(좌), 학력수준별(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표 5.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의 학원유형별, 직업별 수강 분포

(단위: %)

	대학생	직업인	무직	계
국제화_학교	44.1 (16.8)	39.1 (22.2)	16.8 (6.4)	100.0
국제화_평생	76.5 (41.3)	14.4 (11.6)	9.2 (4.9)	100.0
기예	21.3 (0.9)	43.7 (2.7)	34.9 (1.4)	100.0
예능	32.6 (7.5)	39.7 (13.5)	27.7 (6.3)	100.0
인문사회	25.1 (16.5)	8.7 (8.6)	66.2 (43.7)	100.0
입시검정 및 보습	19.3 (9.5)	31.9 (23.6)	48.9 (24.2)	100.0
직업기술	23.1 (7.5)	36.8 (17.8)	40.1 (13.0)	100.0
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1)

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의 학원 수강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직업별, 학력수준별 성인 학원수강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았다(그림 7). 먼저 직업별 지역 분포를 보면 2011년 성인 학원수강생 중 대학생은 관악구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인 학원수강생의 약 26만 명이 관악구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별로 보니 그 가운데 대학생이 약 16만 명에 달하였다. 직업인인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수원시, 고양시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종로구, 관악구도 밀집 분포지역으로 나타났다. 무직인 성인 학원수강생은 관악구와 동작구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원시, 고양시도 주요 분포지역으로 꼽혔다.

아울러 학력수준별 지역 분포를 보면 초졸 학력의 성인 학원수강생은 성남시, 고양시, 강북구 지역에서 두드러진 분포를 보였다. 중·고졸 학력의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수원시, 고양시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동작구, 성남시에 주요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학원수강생 중 대졸 학력자는 관악구와 동작구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으로 수원시, 고양시, 종로구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성인 학원수강생을 학원유형별, 직업별, 학력수준별 범주로 세분화하여 수강 분포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대학생은 국제화 분야를 가장 많이 수강하였고 이들의 주요 분포지역은 관악구와 종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악구와 종로구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졸자의 학원수강생도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인은 입시검정 및 보습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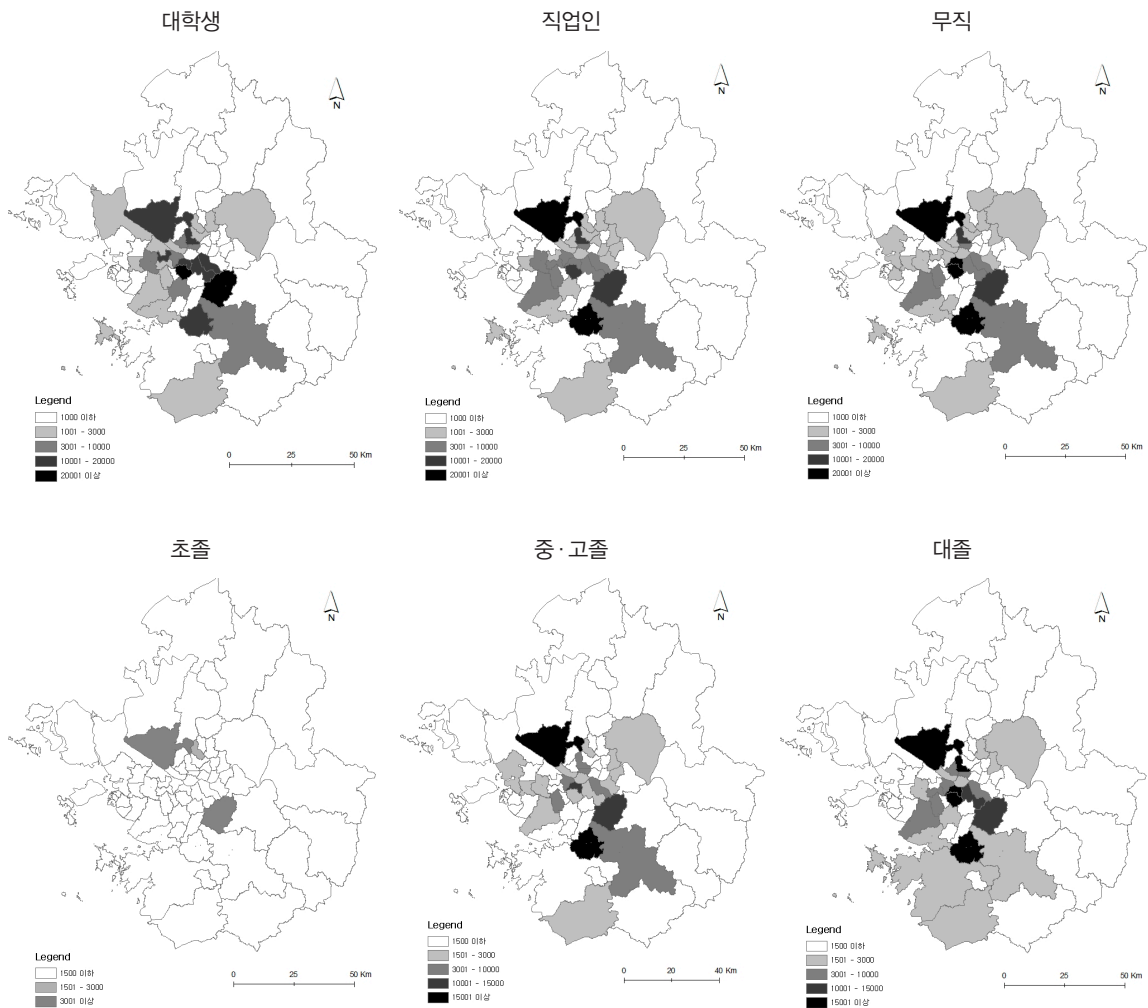


그림 7.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의 지역별 분포: 직업별, 학력수준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1)

예 분야로의 학원 수강 비중이 높고 이들의 주요 분포지역은 수원시, 고양시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원시, 고양시 지역에 분포하는 학원수강생의 학력 수준은 중·고졸이 많았다. 특히 각종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수원시는 선취업한 직장인이 후진학을 위한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로의 학원 수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아파트단지 지역인 고양시는 주부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

는 미술, 무용 등의 기예, 예능 분야의 학원 수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직인 학원수강생은 인문사회와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로의 수강 비중이 높고 관악구, 동작구, 수원시, 고양시에 주요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성인 대상 사교육 시장의 공간적 집중지역(Hot spots) 특성 분석

#### 1) 성인 학원수강생의 집중 분포지역의 특징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들의 분포에 있어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고자 Moran's I 측도(Moran, 1948)를 통해 검증하였다. Moran's I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상의 관계에 대한 공간가중치행렬(Spatial Weighted Matrix)을 산출하여 공간상의 인접 여부를 구조화해야 한다. 공간적 인접성(Polygon Contiguity)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여 Moran's I 값을 측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2000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Moran's I 값은 모두 95%의 신뢰수준에서 정(+)의 공간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ran's I 값은 증가세를 보이다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역적 군집성의 집적 정도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적 군집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나타나는지, 상대적으로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어느 지역에 이상치(Outliers)가 존재하는지 보았다. 국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다양한 분석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Getis-Ord가 제시한  $G^*$ 통계량(Getis and Ord, 1992; Ord and Getis, 1995)의 핫스팟(Hot spot) 분석을 통해 공간적 군집을 확인하였다.

$G^*$ 통계량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G_i^* = \frac{\sum_{j=1}^n w_{ij}x_j - \bar{X} \sum_{j=1}^n w_{ij}}{S \sqrt{\frac{n \sum_{j=1}^n w_{ij}^2 - (\sum_{j=1}^n w_{ij})^2}{n-1}}}$$

$$\bar{X} = \frac{\sum_{j=1}^n x_j}{n} \quad S = \sqrt{\frac{\sum_{j=1}^n x_j^2}{n} - (\bar{X})^2}$$

위 식에서  $n$ 은 지역 수,  $x_i, x_j$ 는  $i, j$  지역의 성인 학원수강생수를 의미하고,  $w_{ij}$ 는  $i$ 에서  $j$  지역까지의 공간 가중치를 의미한다.

Getis-Ord의  $G_i^*$ 는 높은 값(hot spots)을 갖는 군집인지 낮은 값(cold spots)을 갖는 군집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_i^*$ 의 z-score 값이 1.96 이상이면 높은 값의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지역(hot spots)임을 의미하고, 1.96 이하이면, 낮은 값의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지역(cold spots)임을 의미한다.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공간가중치를 적용한 분석 결과, 95%의 신뢰수준에서 국지적인 공간적 상관성은 몇 개의 군집 패턴을 나타냈다(그림 8). 성인 학원수강생의 공간적 집중지역으로 2001년에는 강북의 종로구 일대, 서초-강남구가 핫스팟 지역으로 나타났고 2006년에는 기존에 나타났던 군집 패턴에 수원-안산시가 추가 군집지역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관악-동작구 지역과 그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값들이 군집(hot spots)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는 대부분 대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갈수록 강남구 지역으로 더욱 집중되는 분포 특징을 보이는데 반해(박소현·이금숙,

표 6. Moran's I 값 추이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Moran's I Index	0.130974	0.164664	0.137563	0.094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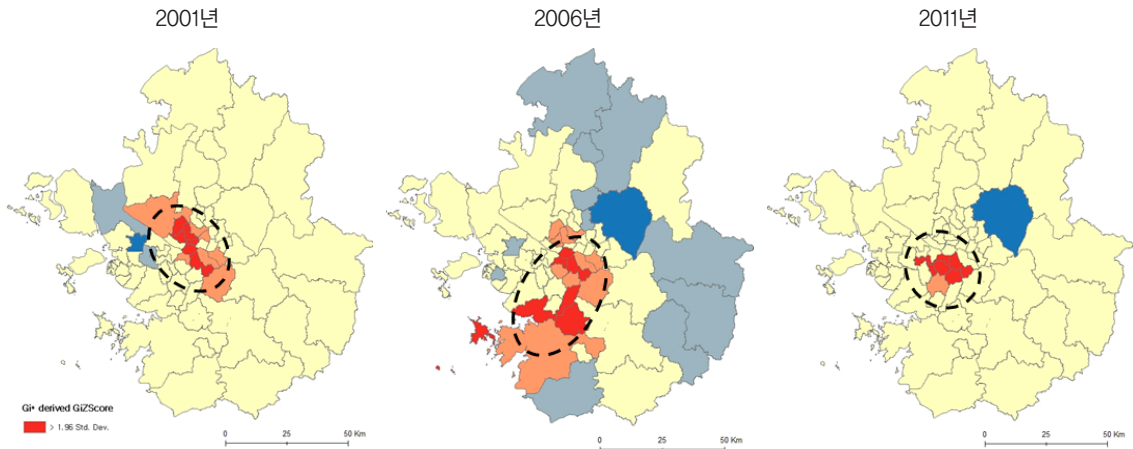


그림 8.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의 공간적 집중지역 분포 추이

2011), 성인의 사교육 수요는 특정한 한 지역을 중심으로 갈수록 더욱 밀집하는 분포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노동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받아 사교육 수요가 변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관악-동작구 지역으로의 공간적 집중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직업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적 상황이 성인 학원수강생의 공간적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 성인 학원수강생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인 학원수강생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시군구 단위의 학원 유형별 성인 학원수강생을 종속변수로 하여 총 4개의 모형을 구축하였다(표 7). 학원의 유형은 ‘사설학원 계열 분류 기준’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 종류에 속하는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분야로 각각의 학원수강생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설명변수는 직업별(대학생, 직업인, 무직), 학력수준별(초졸, 중·고졸, 대졸) 성인 학원수강생수와 15세 이상의 취업인구, 교육정도별(중졸, 고졸, 대졸) 경제활동상태 인구, 교육정도별(중졸, 고졸, 대졸) 비경제활동상태 인구,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투입하였다.

최적의 회귀모형을 식별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만을 선택해가는 단계선택법(Stepwise)을 적용하였고,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분석 결과인 표 8을 보면, 먼저 모형 1의 직업기술 분야의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기예 분야의 학원수강생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결정계수 값은 .707로 70.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모형 2의 국제화 분야의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

표 7. 다중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 항목

영역		투입변수	자료
종속변수		학원유형별 학원수강생수(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분야)	
독립변수	성인 학원 수강생	직업별(대학생, 직업인, 무직) 학력수준별(초졸, 중·고졸, 대졸) 학원유형별(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분야)	교육통계 (2011)
	인구	취업인구(15세 이상)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상태(중졸, 고졸, 대졸)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상태(중졸, 고졸, 대졸)	인구총조사 (2010)
	사회·경제적	사업체종사자수(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사업체기초 조사(2010)

표 8.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학원수강생)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값
모형1	직업기술 분야	상수		2,964
		학원수강생(기예)	.844	12.476
$R^2 = .712$ 수정된 $R^2 = .707$				
모형2	국제화 분야	상수		2,996
		학원수강생(대학생)	1.007	30.825
		비경제활동인구(2, 4년제 대졸)	-.180	-5.505
$R^2 = .940$ 수정된 $R^2 = .938$				
모형3	인문사회 분야	상수		-2,008
		학원수강생(무직)	.907	17.091
$R^2 = .823$ 수정된 $R^2 = .820$				
모형4	기예 분야	상수		-3,159
		학원수강생(직업인)	.715	10,585
		학원수강생(초졸)	-.491	-8,323
		숙박 및 음식점업	.689	4,242
		도매 및 소매업	-.303	-2,095
$R^2 = .840$ 수정된 $R^2 = .830$				

포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인 학원수강생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4년제 대졸자이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인구는 부(-)<sup>2)</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결정계수 값은

.938로 93.8%의 강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모형 3의 인문사회 분야의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무직 상태의 학원수강생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sup>3)</sup>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결정계수 값은 .820로 82%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으로 모형 4의 기예 분야를 수강하는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직업인 학원수강생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연관성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졸 학력의 학원수강생과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결정계수(.830)의 설명력은 83%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여 보면, 학원 유형별로 본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속성 보다 학원수강생의 직업별(대학생, 직업인, 무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화 분야의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학원수강생 중 대학생이 가장 관계가 깊은 것으로 설명되었고, 인문사회 분야를 수강하는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무직 상태인 학원수강생과 가장 큰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예 분야를 수강하는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직업이 있는 학원수강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기술 분야의 학원은 기예 분야 학원수강생의 분포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사설학원의 수강생 중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대학생, 직업인, 무직)별, 학력수준(초졸, 중·고졸, 대졸)별로 범주를 나누었고 각 범주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학원수강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지역별 분포 패턴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Moran's I 값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판별하였고 G\*통계량을 통한 핫스팟(Hot spot) 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적 군

집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성인 대상학원 유형별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설명변수와의 관계 도출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노동공급의 구조에 있어서도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왔다. 반면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로 고용창출력은 하락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학력 이외의 취업준비 및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성인의 사교육 참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도 급성장하였다.

둘째, 전국과 수도권 지역의 성인 학원수강생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정점을 찍었고 그 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원수강생을 직업별, 학력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그 증감 추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강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성인 학원수강생 점유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내에서도 특정지역으로 집중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즉, 성인의 선택적 이동에 있어 사교육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셋째,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의 수강 분포 특징을 학원유형별, 직업별로 본 결과, 먼저 학원유형별로 보면 국제화 분야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두 종류 모두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예와 예능 분야는 직업인, 인문사회와 입시검정 및 보습, 직업기술 분야는 무직 상태인 성인 학원수강생의 수강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은 평생직업교육학원 종류의 국제화 분야를 가장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는 성인 학원수강생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의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분야로의 수강 비중이 높

았다. 무직인 성인 학원수강생은 인문사회 분야를 가장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성인은 주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과 관련된 학원 수강으로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에 있어 공간적 자기상관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고자 Moran's I 값을 산출하였고,  $G^*$ 통계량의 핫스팟(Hot spot) 분석을 통해 공간적인 군집 패턴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성인 학원수강생은 정(+)의 공간적 상관성을 보이며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핫스팟(Hot spot) 분석을 통해 성인 학원수강생의 공간적 집중 분포지역이 강북의 종로구 일대, 서초-강남구 지역에서 수원-안산시 지역으로 추가 확산되었다가 관악-동작구 지역과 그 주변 일대로 집중 분포지역이 변화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수요가 갈수록 강남구 지역으로 더욱 집중 분포되는 특징과 달리 성인의 사교육 수요는 특정한 한 지역을 중심으로 갈수록 더욱 밀집하는 분포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섯째, 학원유형별로 성인 학원수강생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화 분야의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대학생인 학원수강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사회 분야를 수강하는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무직 상태인 학원수강생과 가장 큰 관계를 갖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기예 분야를 수강하는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는 직업이 있는 학원수강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반면 직업기술 분야의 학원은 기예 분야 학원수강생의 분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원 유형별로 본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원수강생의 직업별(대학생, 직업인, 무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노동통계, 교육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급성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확산과 그 함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였다. 무엇보다 학원수강생을 직업별, 학력수준별 등 다양한 세부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성인 대상 사교육 시장의 성장과 확산은 사회경제적 시기 상황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이 갖는 공간적 특성과 지역민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정도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 고려도 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사설학원 이외의 다른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등 연구 자료의 다양화를 통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성인 교육 시장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

-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 학원수강생 자료는 사설학원의 소재지를 기반으로 집계된 학원수강생 중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과 직업인, 무직자 중 청년층, 성인기에 해당하는 학원수강생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수치이다.
- 2)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가 포함되며, 2005년부터는 국외 진학자도 집계에 포함된다.
- 3) 2000년 이후 데이터는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이고, 이전 자료는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인구 자료이다.
- 4) 교육/근로형태별 취업자수로 매년 8월 집계된 수치 자료이다.
- 5) 사설학원의 유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항 관련)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의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 분야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종류의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독서실 분야로 구분된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



로서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계열을 의미하며,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 예체능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는 제외된다. 예능 분야는 음악, 미술, 무용 등이 포함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 분야는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경영사무관리 계열의 교습과정 등이 포함되며 국제화 분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통역, 번역이다. 인문사회 분야는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등이 포함되고 기예 분야는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에,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미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용변 등의 교습과정이 포함된다.

6) 초·중·고 재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도 2011년 71.7%, 2012년 69.4%, 2013년 68.8%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 참고문헌

- 김민선, 2013,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미래교육연구* 26(1), pp.21-42.
- 김지하·박지은, 2008, “대학생의 사교육 수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pp. 93-121.
- 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 “진료개발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대졸 청년의 능력개발 노력과 주관적 취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직능개발연구* 14(2), pp.55-81.
- 노태익·박자연, 2004, “대학생들의 사교육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33, pp.5-28.
- 류지성, 2010,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 민혜리, 2003, “대학졸업자 취업구조의 변화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양식 변화에 미친 영향,” *교육비평* 2003(12), *교육비평사*, pp.148-182.
- 문은진·이금숙, 2013, “금융산업의 분포특성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 분석: 수도권 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3), pp.512-527.
- 박성재, 2006, “청년층 취업준비 노력의 취업효과 분석,” *노동리뷰* 16, pp.47-62.
- 박소현·이금숙, 2011, “사교육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 수도권 지역 사설학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1), pp.33-51.
- 박지은·김병주, 2012,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교육재정경제연구* 21(1), pp.285-308.
- 신광영·문수연, 2014, “계급, 젠더와 대학생 사교육,” *산업노동연구* 20(1), pp.31-64.
- 이병훈, 2002,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25(1), pp.1-21.
- 이정미, 2010, “대학생의 과외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계열별 차이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9(2), pp.65-94.
- 전재식, 2011, “고학력화와 학력별 취업구조 변화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정지선·김훈호, 2009,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3), pp.89-122.
- 채창균·김태기, 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pp.89-107.
- 최재현, 2013,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특성 분석,” *경제지리학회지* 16(2), pp.233-246.
- 하영주·이원호, 2013, “교육환경과 주택가격 간 관계와 사회공간적 격차에 대한 함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pp.86-98.
- Baker, David P., LeTendre, Gerald K. and Wiseman, Alexander W., 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pp.1-17.
- Blanchflower, D. G. and R. B. Freeman., 2000, “Youth Un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oemen, H. G., 2005, “Job Search, Search Intensity,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An Empirical Analysi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0(1), pp.231-269.
- Couch, K. A., 1996, “New Evidence on the Long-term Effects of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Writings in Economics*

- 65(2), pp.98-108.
- Getis, A. and J. K. Ord., 1992, "The analysis of spatial association by use of distance statistics," *Geographical Analysis* 24(3), pp.189-206.
- McGuinness, S., 2006, "Over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0(3), pp.387-418.
- Mischo, C. and Haag, L., 2002, "Expansion and effectiveness of private tutoring,"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7(3), pp.263-274.
- Moran. P., 1948, "The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map,"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10, pp.243-251.
- Ord, J. K. and A. Getis., 1995,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statistics: distributional issues and an application," *Geographical Analysis* 27(4), pp.286-306.
- O'sullivan, D. and D. J. Unwin., 2010, *Geographic information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Sicherman, N., 1991, "Over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Labor Economics* 9(2), pp.101-122.
- Topel, R. H. and M. P. Ward., 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pp.439-479.
- 교신: 이금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화: 02-920-7138, 이메일: kslee@sungshin.ac.kr
- Correspondence: Keumsook Lee, 249-1 Dongseon-dong 3-ga, Seongbuk-gu, Seoul 136-742, Korea, Tel: 82-2-920-7138, E-mail: kslee@sungshin.ac.kr
- 최초투고일 2014년 4월 30일  
수 정 일 2014년 5월 26일  
최종접수일 2014년 5월 28일